

6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일본]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구 분	1-4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농림축수산물	2,575,010	1.1
농 산 물	1,313,046	-3.2
축 산 물	432,280	1.0
임 산 물	331,672	0.2
수 산 물	497,211	15.9

자료 : 일본농림수산물성 통계정보

□ 청과물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품목	'12.1~4	'11.1~4	증감%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14	61	△77.0	멕시코	12	한국	2	-	-
멜론(신선)	990	1,222	△19.0	멕시코	889	한국	68	뉴질랜드	31
딸기(신선)	43	12	266.5	한국	22	미국	21	-	-
매실(조제품)	1,031	1,019	1.2	중국	1,028	한국	2	타이완	0.8
토마토	496	210	136.9	한국	219	미국	179	뉴질랜드	60
겉구양배추	876	543	61.4	중국	648	한국	174	타이완	54
배추	17	7	145.9	한국	10	중국	8	-	-
서양우영(Mammoth)· 무 등 식용뿌리	1,156	1,510	△23.5	중국	1,062	대만	69	한국	10
기타버섯	51	76	△32.7	한국	34	프랑스	5	중국	3.9
고추속·피망속	4,222	2,890	46.1	한국	2,684	뉴질랜드	1,214	네덜란드	317
파프리카	4,064	2,771	46.7	한국	2,526	뉴질랜드	1,214	네덜란드	317
표고버섯(건조)	1,815	2,018	△10.1	중국	1,806	한국	9	홍콩	0.3

자료 : 일본농림수산물성 통계정보

○ 4월 야채수입 전체동향

- 2012년 4월의 야채수입량은, 전년동월비104%인 257,836톤으로 나타남. 종류별로 보면, 「신선야채」는 동104%인 98,458톤, 「냉동야채」는 동105%인 79,209톤, 「염장등 야채」는 동117%인 10,857톤, 「건조야채」는 동93%인 4,102톤, 「초 조제야채」는 동102%인 3,389톤, 「토마토가공품」은 동102%인 20,702톤, 「그 외 조제야채」는 동105%인 39,700톤, 「그 외」는 동77%인 1,420톤으로 나타남.
- 건조야채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종류에서 전년동월을 상회하였고 전체의 야채수입량은, 과거 5년의 동월비로는 최대로 나타남.

○ 4월 신선야채 전체 수입동향

- 수입량이 증가한 주 품목은 무를 포함한 기타 근채류가 전년동월비 990%인 3,299톤, 겉구양상추가 동215%인 1,051톤, 셀러리가 동182%인 1,047톤, 브로콜리가 동160%인 4,975톤, 아스파라거스가 동150%인 1,603톤, 겉구양배추가 동145%인 6,282톤, 우영이 동130%인 4,652톤, 파프리카가 동129%인 2,551톤, 마늘이 동125%인 1,765톤, 감자가 동123%인 2,089톤, 생강이 동112%인

2,344톤, 파가 동105%인 4,324톤등으로 나타남.

- 브록콜리는 주산지인 아이치현산, 사이타마현산 등이 저온의 영향으로 생육이 늦어져 전년을 크게 상회하였음. 수입량의 1위는 미국이 4,889톤, 2위는 중국이 85톤이었음.
- 양배추는 가나가와현산이 겨울철의 저온의 영향으로 생육이 늦어져 적은 입하량을 보여 전년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음. 수입량 1위는 중국의 5,042톤, 2위는 한국의 721톤, 3위는 대만의 519톤이었음. 양배추는 금년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상회하였음.
- 우엉은 중식이나 외식의 수요증가의 영향으로 전년을 크게 상회하였음. 수입량 1위는 중국이 4,097톤, 2위는 대만이 553톤으로 특히 중국은 동220%로 나타나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수입량이 감소한 주 품목은 호박이 동72%인 14,150톤, 멜론이 동74%인 3,239톤, 양파가 동98%인 31,118톤으로 나타남.

○ 한국산 동향

- 토마토는 금액베이스로 전년(210백만엔)대비 137% 증가한 496백만엔으로 나타남.
- 파프리카는 금액베이스로 보면 전년의 2,771백만엔보다 46.7% 증가한 4,064백만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한국 국내의 생산량이 늘어나 수출물량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임.

□ 가공식품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품목	'12.1~4	'11.1~4	증감%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조제품	52,889	46,808	13.0	중국	26,456	태국	25,854	한국	369
유청(유아용)	821	1,376	△40.3	미국	286	한국	134	네덜란드	133
정제당	753	199	278.8	태국	455	브라질	201	한국	55
츄잉껌	43	48	△11.2	한국	22	중국	16	태국	4
쿠키,비스켓,크레카	2,644	2,440	8.4	미국	394	말레이시아	266	한국	259
코코아조제품	801	729	10.0	싱가폴	563	한국	115	태국	58
알콜음료	60,019	54,767	9.6	프랑스	21,247	한국	8,020	미국	5,201
맥주	1,609	1,379	16.6	아일랜드	482	한국	176	벨기에	172
기타조제식료품등	72,808	69,488	4.8	미국	16,147	중국	9,902	한국	6,220
쇼티닝	84	106	△21.4	말레이시아	64	한국	12	인도네시아	5
조제식료품	31,256	29,984	4.2	미국	7,549	중국	4,504	한국	4,468
곤약	903	807	11.9	중국	822	인도네시아	50	한국	30
아이스크림	596	563	5.9	뉴질랜드	308	오스트레일리아	126	한국	64
인삼	930	771	20.6	중국	813	한국	110	타이완	6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한국산 동향

- 알콜음료 전체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60,019백만엔으로 나타남. PB형태의 맥주(16.6%증가)와 소주는 꾸준히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나 막걸리는 정체되고 있음.
- 계육조제품(삼계탕)은 금액베이스로 보면 전년대비 13.0% 증가한 369백만엔을 기록함. 최근 삼계탕이 점점 인기상품으로 대두되어 대형슈퍼등이 구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과자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2,644백만엔의 수입실적을 보임. 한류 붐의 영향으로 점차 한국산 과자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세에 있음.

□ 막걸리 시장동향

○ 시장규모

- 일본에서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탁주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현재 일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막걸리의 대다수가 한국에서 수입된 상품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약 3%정도로 추정됨.
- 막걸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전문조사기관인 “후지경제”에 따르면 2011년 막걸리 시장규모를 101억엔으로 추산
- 한국음식점을 중심으로 판매되었던 막걸리는 2002년 월드컵, 2004년 한류 붐에 따른 한국식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2008년 이후 폭발적인 시장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일본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고 기존 소주 유통루트를 활용한 진로의 시장침입으로 막걸리시장은 '09년부터 매년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임
- 2011년에는 대형 음료제조업체가 막걸리를 발매하며 인기 한류스타를 기용한 TVCM이 주목을 받아 당초보다 3배이상 판매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히트를 기록함.

○ 유통동향

- 현재 시판용으로 유통되는 막걸리는 거의 살균막걸리로 상온유통이나 최근 한국산 생막걸리가 냉장으로 유통되고 있음
- 막걸리는 원래 한국식당이나 야키니꾸(불고기)점에서 업무용으로 취급이 많았으나 최근년도 주목을 끌면서 일본 이자카야에서도 막걸리가 메뉴에 등장
- 시판용이 57%, 업무용이 43%의 비율로 판매되고 있음. (후지경제 조사)

○ 소비동향

- 최근 일본 주류 동향을 보면 저알콜, 논알콜, 저칼로리 경향으로 주류 도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칵테일 형태의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탄산음료와 위스키가 혼합된 하이볼 형태의 음용법 인기 등 탄산함유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자카야 등 업무용 막걸리 또한 칵테일 형태의 메뉴제안을 흔히 볼 수 있고, 업계 또한 칵테일 형태의 막걸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수입동향

금년 6월말까지 대일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5% 감소한 22.5백만불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전년도가 대지진 특수의 영향으로 급증했었고 최근 일본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외식을 자제하는 등 소비둔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됨.

- 3년간 막걸리 수출실적

물량(톤)				금액(천불)			
'09	'10	'11	전년비	'09	'10	'11	전년비
6,157	15,556	38,659	148.5%	5,400	15,585	48,419	210.7%

○ 시사점

- '11년도 시장규모의 급격한 확대로 금년 들어 총수요가 예년보다는 증가세가 적은 것으로 보이나 이제까지의 막걸리의 신장세가 워낙 컸던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발매에 따른 상쇄효과 등으로 시장규모는 약10%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일본인들은 특히 생이란 단어를 선호하고 있어 맛이 우수한 생 막걸리의 시장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한다면 수출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